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소식지

NEWSLETTER FOR WORLD HERIT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CS'



unesco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cs
World Heritage since 2019

서원산책

2024. 6

Vol. 9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달성 도동서원 전경



서원산책

2024. 6 | VOL. 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소식지
NEWSLETTER FOR WORLD HERIT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CS'

기획 및 편집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발행인

이배용

발행일

2024년 6월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802호

전화

02-929-5442

통권

9호

홈페이지

k-seowon.or.kr

디자인 및 인쇄

그래픽코리아

Contents



서원탐구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서원

안동 도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02

특집: 세계유산 등재 5주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행사 06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식 개회사 08

이배용 이사장, 함양 남계서원 초헌관 향사 10

제향 알아보기 ①

전문가 인터뷰

'한국의 서원'의 제향 의례는
현재 전승되는 서원 제향의 모범 사례 12

제향 알아보기 ②

전문가 대담

서원의 제향과 민간의 제사,
다른 점과 전승을 위한 과제는? 16

제향 알아보기 ③

외국인 춘계향사 답사기

전통을 품다 - 안동 병산서원 춘계향사 참관기 22

스페셜 기고

'한국의 서원'의 위상

연속유산으로서의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 28



서원즐기기

서원 행사 ❶

필암서원 백일장

장성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선생 추모 백일장

34

서원 행사 ❷

고교생의 제향 참관기

서원, 그리고 끝나지 않을 기억

40

우리 서원 인근의 핫플

서원 가는 길의 캠핑장

학문을 배우고 자연을 즐기고 서원과 캠핑장

42



서원소식

Information & News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소식

48

독자 참여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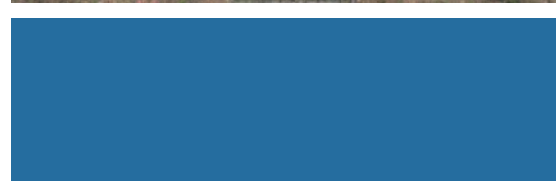
서원에서 건진 나의 인생샷

서원은 사진 맛집!

멋진 순간을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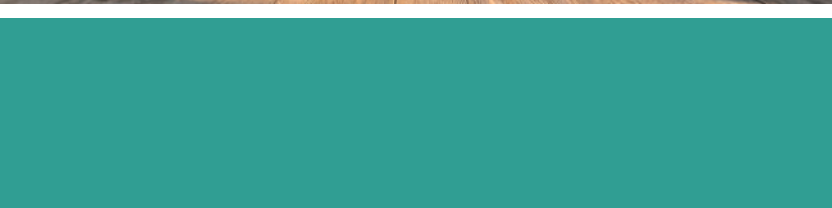
50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서원

안동 도산서원 | 달성 도동서원 | 안동 병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 01 _ 안동 도산서원 전경
- 02 _ 안동 도산서원 진도문과 동광명실
- 03 _ 안동 도산서원 시사단



01



02



03

달성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으로 1

01 _ 달성 도동서원 전경

02 _ 달성 도동서원 환주문

03 _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안동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01 _ 안동 병산서원 전경

02 _ 안동 병산서원 존덕사에서 바라본 배롱나무

03 _ 안동 병산서원 입교단 정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행사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식 개최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재단)는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배용 재단 이사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이개호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한중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과 지역주민, 서원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날 행사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이라는 기념일을 선현에게 고하기 위한 고유례를 시작으로 한국의 서원 사계절 사진전, 5주년 기념 배롱나무 식수식, 기념공연에 이어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와 보존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이어 장성군 관내 고등학생 30명에게 필암서원 김상백 도유사가 장학금을 수여했다.



•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선현께 고하는
장성 필암서원의 고유례**

기념식에 앞서 우동사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축하하는 고유례를 봉행하여 경사를 선현께 알렸다. 고유례(告由禮)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향을 올리고, 축문을 고하여 선현들에게 알리는 의식이다.



• **아름다운 9개 서원의 모습을 담은 ‘한국의 서원’ 사계절 사진전**

장성 필암서원 경내에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아름다운 사계절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는
‘배롱나무’ 식수식**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여 배롱나무(선비의 꾸준한 학문정진과 기품을 의미) 식재행사를 진행했다.



• **‘한국의 서원’의 관리와 보전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감사패 수여**

이배용 재단 이사장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와 보존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 **장성군 관내 고등학생 30명에게 장학금 수여**

장성관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장학재단의 장학증서를 필암서원 김상백 도유사가 수여함으로써 서원의 교육기관 의미를 함께 전달하였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식 개회사

이배용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

당당한 전통문화유산과 엘리트 교육의 산실로서의
교육유산으로 거듭나야

안녕하세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 이배용입니다.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유산청의 이경훈 차장님, 전라남도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오시는 김영록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앞장서시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님 감사드리고, 장성 김한중 군수님, 이개호 국회의원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님, 항상 우리 서원을 아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개 서원의 운영위원장이신 병산서원의 도유사 류한옥 회장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도 역사학자로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덕과 충절 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길이길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필암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감회들 속에 2010년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장을 할 때 '우리의 브랜드는 전통문화다'라는 신념에서 교육열의 본산인 서원 9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구상하고 여러 유림들의 협력과 도지사님, 시장님, 군수님 등 지자체 여러분들의 협력과 특히 문화재청의 협력으로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유네스코 43차 총회에서 등재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햇수로 10년의 세월을 이어 오면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간에 한 번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원은 보존은 잘 되었는데 서원 주변을 더 정비해 달라는 내용과 중국의 서원 등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과의 차별성을 좀 더 강조해 달라고 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가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후 준비를 잘하여 다시 도전해서 2019년 등재되었을 때의 감격적인 순간은 지금도 기억하면 눈물이 왁글 납니다. 그 순간 우리 유림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재됐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5주년을 기념하면서 몇 가지 의미를 되새기자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잘 보존해서 원형이 유지됐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시련을 겪었음에도 잘 보존해 오신 9곳 서원의 유림들께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성은 물론 하늘의 도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원에 오면 인간의 정성과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서원의 제향 기능입니다.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은 사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서원 유림들께서 9곳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역할에 대한 존중으로 제가 사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9곳 중에 7곳 서원의 초헌관 역할을 했습니다.

상부상조하고 스승과 제자간의 존경과 사랑의 공동체

존중과 감사로 상생의 시대를 열어온 것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제는 젊은이들이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제향 기능이 이어지지 못했는데, 우리는 제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제향을 하면서 배향 인물들의 인격과 학문, 그리고 정신을 기리면서 시대가 변하고 물질이 풍부해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정신문화를 우리가 제향을 통해서 길이길이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향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제향에 올 수 있도록 국가나 또 서원이나 저희들이 더 많이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제강점기와 6.25의 어려움을 겪고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적 번영을 이룬

것의 중심은 교육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열의 본산이 바로 1543년 소수서원에서부터 시작한 사립 명문 고등 엘리트 교육기관입니다. 엘리트는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격의 도야를 통해서 참다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가는 것,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서 요즘의 저출산 인구 감소의 위기, 디지털 시대 AI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지혜로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해야 할 것이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정상화돼 가지 않는 어려운 과제도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저는 서원을 통해 상부상조하고 스승과 제자간의 존경과 사랑의 공동체 교육 문화유산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기복례라고 우리의 정직, 도덕성과 같은 것들이 서원을 통한 교육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주년 축제의 의미는 미래를 향해 서원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당당한 전통 문화유산과 엘리트 교육의 산실로서의 교육 유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할 때,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실사하며 서원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의 이해로 감격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서원이 갖고 있는 큰 역사적 위상을 우리가 함께 더 이어가고 또 세계적으로 더 자랑할 수 있는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통해 육성해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셔야 이 기능이 더욱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배용 이사장, 함양 남계서원 초헌관 향사

지난 3월 24일 경남 함양 남계서원에서 진행된 춘계향사에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배용 이사장이 초헌관으로 참석해 봉행했다.
이날 초헌관은 이배용 이사장이 맡았으며, 아헌관은 송호찬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종헌관은 김상원 의성김씨 후손이 맡았다. 함양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매년 3월에는 춘향제(春享祭)가 9월에는 추향제(秋享祭)가 열린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초헌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배용 이사장은 ‘한국의 서원(9개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앞장서 지휘하고, 등재 이후에도 한국의 서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점을 인정받아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여성 초헌관으로 임명되어 7개 서원 향사에서 주향자께 첫 술잔을 올렸다. 이배용 이사장의 초헌관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10월 1일 | 안동 도산서원 추계향사
- 2021년 3월 30일 | 정읍 무성서원 춘계향사
- 2022년 9월 2일 | 논산 돈암서원 추계향사
- 2023년 3월 10일 | 장성 필암서원 춘계향사
- 2023년 4월 29일 | 안동 병산서원 춘계향사
- 2023년 9월 26일 | 경주 옥산서원 추계향사
- 2024년 3월 24일 | 함양 남계서원 춘계향사

전문가 인터뷰

「한국의 서원」의 제향 의례는 현재 전승되는 서원 제향의 모범 사례



서원은 제향 의례를 통해 학문이 뛰어났던 선현의 학덕을 추앙하였으며, 사당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가에 따라 서원의 위상이 결정되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김순한 교수를 만나 제향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과제를 들어 보았다. 김순한 교수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있다.

김순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서원에서의 제향의 형식과 내용, 그 의미는 무엇 입니까?

서원의 제향 의례는 정기적인 제향 의례와 비정기적인 제향 의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제향 의례는 봄과 가을에 봉행하는 춘추향사, 매월 초하루(삭일, 朔日)와 보름(망일, 望日)에 봉행하는 삭망례입니다. 원장과 재유사 및 향중의 유림들이 정월 초 4일에 입원해서 초 5일 새벽 해 뜰 무렵에 봉행하는 정알례도 정기 제향 의례입니다. 삭망례와 정알례는 분향례입니다.

비정기적인 제향 의례는 서원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봉행합니다.

서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건하거나 중건할 때 부득이 위패를 옮겨 봉안할 때는 이안제를 올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환안제를 봉행합니다.

위패를 새로 제작하여 봉안할 때는 예성제를 봉행합니다.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았을 때는 사액례를 봉행하고, 서원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고유례를 올리거나 고유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배향 인물의 학문 또는 가르침에 관련된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서원의 학문 활동은 개별 학습과 공동 학습이 있습니다. 방법은 독서와 강회입니다. 현재도 학문 활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활동이 쉽지 않기에 비정기적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각 서원마다 제향 의례와 관련된 학문 활동이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춘추향사 때 제관들이 모여 서원 원규나 잠언을 경독하는 절차가 있고, 향사를 봉행할 때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를 행하고 도동곡을 성독합니다.



도산서원은 정알레나 춘추향사 때 강당에 모여 퇴계 선생의 도산12곡을 노래하기도 하고 춘추향사 때는 백록동규를 독약하고 퇴계 선생의 향약이라든가 남전여씨향약을 독약합니다.

필암서원은 삭망봉심례를 올리기 전에 제관들이 학규를 낭독하고, 매년 5월에 하서 추모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은 향사 봉행할 때 낭송합니다. 병산서원은 풍산 중·고등학생들이 제례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백록동규 또는 퇴계 선생의 향약을 함께 독약합니다.

현재의 제향은 과거의 제향과 비교하여 무엇이 바뀌었고, 변경하였을 때 거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시간의 변경입니다. 제물 물목이라든가, 순서에도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변경은 예전에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 바로 시행하거나 고유례라는 의례를 통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서원마다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 회의에서 논의를 통하여 변경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서 봉행하는 제향 의례에서 보이는 특성과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베트남 서원에서는 제향 의례가 한국 서원처럼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서원 향사는 조선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 체계의 작동 양상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의례의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 체계의 구현으로서의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원 향사를 통해 원생들은 유학의 가치 기준을 확인하고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확인하면서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조선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로 확산되는데 기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제향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자체와 국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아시아 중 한국 서원에서만 볼 수 있는 제향 의례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례보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시민의 제향 의례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각 서원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례보존회는 지역민과 시민들의 제향 의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제향 의례 기본 교육을 한다든지, 제향 의례의 알묘례에 참여하는 등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례 보존의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례보존회는 제향 의례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제향 의례 보존과 전승 그리고 지속을 위한 과제는 무형유산 지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고민입니다. 과제는 본연의 서원 제향 의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원을 위해서는 논의와 토론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는 현재 제향 의례를 보존하고 전승되는 모든 서원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유사 등 서원 관계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서원 관계자의 의견은 여덟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향 의례를 보존하고 전승할 후계자가 현저히 부족해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향 의례의 보존과 전승에는 지자체와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향 의례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네 번째 일반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향 의례의 참여 확대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향 의례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여섯 번째는 제향 의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향 의례 자료를 한글로 쉽게 국역하여 국역본을 간행해서 보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향 의례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강학 기능이 다시 복원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순한 교수
인터뷰 영상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 대담

서원의 제향과 민간의 제사, 다른 점과 전승을 위한 과제는?

서원의 제향과 민간의 제사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서원 연구자와 민간 제사 연구자를 통해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리고 보전과 전승을 위한 과제를 알아보았다.

대담은 지난 5월 1일 달성 도동서원에서 이루어졌다.



대담 사회자

신종일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팀장

대담 참여자

김시덕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김순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사회자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교육홍보팀 신종일 팀장입니다. 오늘 대담회는 서원의 제향과 민간에서의 제사에 대해 알아보고 보존과 전승 측면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서원에서 행해지는 제향과 민간의 제사와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광우 서원 제향도 큰 틀에서 보면 민간 제사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제사와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제사에 해당되지만 국가 의례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 제향은 공자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중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제사의 목적인데 민간 제사가 일종의 결속력 또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서원 제향은 서원에 모셔져 있는 유학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학문적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도에서 제향이 이루어지고, 특정 학맥과 학파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정체성을 서원 제향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김시덕 민간에서 지내는 기제사는 가계의 계승, 혈통의 계승을 위해 지내는 제사이므로 집안을 잘 되게 하고 조상의 뜻을 받들고 선조를 위한 집안의 영웅 혹은 가문의 영웅을 제사 지내는 것이라면 서원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덕행을 본받겠다는 뜻으로 지내는, 사회의 영웅을 모시기 때문에 사회통합적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안 가계의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일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팀장

서원의 제향과 민간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사는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나요?

김순한 정기적인 제향 의례로 춘추 향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추향사는 문묘의 석전례처럼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합니다. 정알레와 삭망례도 정기적인 제향 의례입니다. 정알레는 매년 정초에 알묘하는 분향례이고 삭망례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입니다.

비정기 제향 의례는 서원의 여러 사안에 따라서 거행하는 의례입니다.

조선시대 서원은 국가의 인정, 즉 공인받는 사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액이 결정되면 사액례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에 봉행하는 아주 중요한 의례입니다. 서원에서는 사액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사액례는 비정규 제향 의례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시덕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

현대에 맞춰 변화해야
제대로 된 전승과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참된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김시덕 민간에서 지내는 제사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지만 계속 발전시켜 온 기제사와 요제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시제는 명절 제사가 꽤 중요한 차례로서 진행이 되죠.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기제사입니다. 기제사는 조상신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신과 참신입니다. 조상신을 뵈고 조상신의 정신을 그대로 받들겠다는 혈통의 계승, 가계 계승이라는 기능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서원 제사의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집사분정과 마지막에 행하는 출문당회죠. 집사분정은 사회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누가 제관이 되고 누가 집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의 지위, 덕망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출문당회는 ‘다음 향사에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 역시 사회정치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원 제사에는 집사분정과 출문당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 제사에는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뵈는 강신과 참신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제사의 차이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원제향과 민간의 제사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광우 현대의 서원 제향을 직접적으로 거행할 인력의 부재, 참례자의 고령화,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같은 것들이 시간과 절차 등에서 서원 제향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 제향을 준비하기 위해 대부분 당일에 입재하고, 한밤중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축법 때문에 성생례는 생략되고 주세법 때문에 제주는 시중에서 구입합니다. 통신의 발달로 헌관을 임명하고 추천하는 절차도 전화 한 통화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음복례도 인근 식당에서 거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간소화가 현대 서원의 제향 의례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운영회 보존회를 만들어서 서원 제향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호응해 여성들도 제관으로 참여시킨다든가 하는 모습들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김시덕 가정 제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제사는 사실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에 4대 봉사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개별적으로 기일 날 집에서 지내는 제사가 다 통합한다는 거예요. 합동 제사라는 용어도 쓰고, 공동으로 기제사를 지낸다든가.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는 개인에서 공동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문중을 중심으로 한 종가에서는 불천 제사 혹은 시향, 산소에서 지내는 파시조라든가 시조에게 지내는 시향은 점점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서원은 선사 봉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스승님을 모시는 제사에서 선비를 양성한다, 후학을 양성한다는 향사 중심으로 제사가 변형되죠. 서원에서 향사는 집사분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선비들을 선택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출문당회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실이 요즘 형식화 되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향 또는 제사와 관련해서 전통과 문화유산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서원제향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광우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전승자를 발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원 제향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서원 제향은 다른 무형유산과 비교한다면 전승에서 수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의례를 익힌다면 전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서원이 워낙 많아서 개별 서원마다 서원 제향을 전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원 제향 의례의 표준을 정한 다음에 미래 무형유산을 전승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이광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서원제향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민간 제사도
국가 무형유산으로 함께 지정해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니다. 그다음은 원형 복원인데, 사회 전반이 편의와 효율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서원 제향도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간소화 과정에서 서원 제향의 원형이 많이 변질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원형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급한 부분은 서원 무형유산인 제향 의례의 기록화를 통해 원형 복원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기록물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원형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한 전승자 발굴 또는 운영에 있어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은 재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제례 보존회가 필요합니다. 전승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로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례 보존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과정에 있어 전승자 발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연결성을 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향 의례에 표준이 필

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합의도 필요하기에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형유산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덕 무형유산을 전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참석을 제한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완전한 독점물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젊은 층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야사카 신사에서 주도하는 ‘기온 마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온 마쓰리에는 약 2천 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도쿄라든가 오사카 등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그 기온 마쓰리에 참가하려고 신청한다고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야 기회가



김순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전승자 발굴과 운영에 있어서
첫째, 지자체 또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둘째, 그 관심은 재정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셋째, 제례보존회가 필요하고,
넷째,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로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합니다.

”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유급 휴가를 줍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장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강조에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향사 날 기간에, 시간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종묘 제례를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맞춰서 바꿔 나가는 것처럼 주말로 바꾼다든가, 무조건 원형이라는 이유로 그것만 맞춰야 할 것인가? 원형은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충분히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 제사는 정신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특히 무형유산은 현실에 맞는 것을 수용하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 맞춰 나가지 않을 때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보존도 중요하고 전승할 어떤 단체도 중요하지만, 참가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의지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제사라는 관점에서 현대에서 되살리고 싶은 의례 또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형식을 현대화한다고 하면 포함하기를 권장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시덕 조선시대와 같이 유교와 불교라는 제한된 종교 환경 속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맞게, 다양한 종교가 있기에 이제는 조상에 대한 민간의 제사에서 조상의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추모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형식, 제사의 법칙, 제사의 규정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향 또는 제사와 관련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내용은?

이광우 우리의 서원 제향 의례는 중국의 서원 제도와 구별되는 한국적 전통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된 유교식 제향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향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주요 서원이 주축이 되어서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서원 제향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활용 방안을 상호 간에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원 제향뿐만 아니라 원형이 잘 보존된 다른 민간 제사들도 국가 무형유산으로 함께 지정해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덕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이라면 사라지는 게 자연적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형을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바꾸어서 혹은 대안적으로 어떻게 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맞게 그리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교육한다면 제향 혹은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전승과 현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참된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한 (제향)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복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통일할 필요가 있고 원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서원에서 제향 의례를 봉행할 때 이게 과연 서원의 제향 의례에 맞는 절차인가를 한 번쯤은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통일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형유산 지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의 제향을 주제로 한 대담 영상으로 연결합니다.

외국인 춘계향사 답사기

전통을 품다 안동 병산서원 춘계향사 참관기

애드리언 힐 (유튜버, 한국관광공사(뉴욕사무소) 여행특파원)



애드리언 힐

애드리언 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다.

은행업에 진출하고자 UNC 샬럿에서 금융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2019년 졸업했다.

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기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에 왔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한국관광공사 뉴욕사무소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행특파원'이 되어 한국의 다양한 작은 마을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에서 SNS로 K-Food, K-Beauty, K-Wave 등의 한국 문화와, 관광지 및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알리기 위해 한국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향 연기에 유교의 전통과 선현들과의 유대감을 느끼다

수세기의 전통과 지혜로 가득 찬 한국의 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의 춘계향사에 초대받고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서원에 들어섰을 때, 저를 둘러싼 역사와 전통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노란색 한복을 입고 갓 또는 유관과 고무신을 신은 32명의 유사들이 저를 둘러 쌓습니다.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은 파란색 옷을 입고 향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유생이라고 불리는 남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참석한 동기에 대해 묻자, 그들은 과거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전통을 지켜야 할 명예와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석자들과 함께 생선찜, 육회, 미역국으로 차려진 저녁 식사를 마치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에서 업무 분담(집사분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자아뢰오, 개자아뢰오, 개자아뢰오"가 제가 들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다음에 유사들이 자리에 앉기 전에 공손하게 읊하고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앉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각 유사들이 제관으로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붓글씨로 된 명단을 붙여 놓은 나무판(분정판)을 뒷벽에서 떼어내어 방 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한 유사가 종이를 조심스럽게 판에서 떼어내 꼼꼼하게 말아 보관하기 위해 옮겼습니다. 유사들은 붓과 먹물로 복잡한 한자를 쓰는 동안 나는 한 유사가 나무판에서 종이를 떼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유사들이 기억과 가르침

을 기리겠다는 의지를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집사분정이 끝난 후, 하루의 마지막 절차인 제물을 담은 순서가 되었습니다(제물근봉). 저는 함께 참석한 사람들을 따라 서원의 오른쪽에 있는 방(전사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유사들은 갈색 강 모양의 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 한 쪽에는 돼지고기, 생선, 미나리와 같이 축축하고 마른 제물이 들은 상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큰 쌀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물인 쌀을 흰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담은 다음, 나머지 음식을 담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각 유생들이 각자 상을 들고 사당에 다가가 봉인된 제물을 올리는 식전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설)

다음날 아침 서원에 도착했을 때, 단아한 검푸른 한복(관복)을 입은 세 사람(헌관)과 밝은 자홍색 한복(관복)을 차려 입은 초헌관, 그리고 노란 삼베 옷을 입은 유사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유사들은 사당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초헌관이 식탁의 음식 배치(진설)를 주의 깊게 살피고 모든 참석자들이 사당 앞에서 두 번 절을 하는 "취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사당의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분향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며, 신을 이 의례에 모시기 위한 "분향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상 위에는 세 개의 잔과 여러 종류의 제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세한 의례의 단계를 지켜봤습니다 - 신성한 선물을 바치는 의례인 "전폐례"와 첫 잔을 바치는 "초헌례"의 시의적절한 몇 단계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향사 동안 참석자들이 조상신(선현)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저는 유사들이 추도사(독축)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 각 유사들이 동시에 읊하며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당 안에서 두 번째(아헌례)와 세 번째(종헌례) 술잔을 바치는 의례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고, "음복례"를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당 문 밖의 서쪽에 강 모양의 상이 놓여지고, 밝은 자홍색 한복을 입은 초헌관은 금색으로 도금된 그릇에 고기 한 조각과 음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후, 다른 유사들이 음복례를 하

기 위해 짙은 명석에서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 위에 올려졌던 고기 한 조각을 조상신(선현)들과의 마지막 작별로서 종이에 찢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다시 한 번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유생들은 조상신(선현)들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변과 두를 움직이는 "철변두"를 행했습니다. 이후 15분 내에 향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회원이 큰 소리로 마을 향약을 읽는 동안 각각의 은잔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뒤이어 여러 명의 유사들은 서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과 빠져 있던 의례에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깊은 몰입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관들이 수행하는 복잡한 의례부터 짧은 서원 방문에서 배울 수 있었던 역사까지 의례의 모든 면이 한국 문화에서 유교의 전통을 알리는 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 특별한 순간은 제단에 향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향긋한 연기가 올라갈 때, 저는 앞선 학자들 세대와의 유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의 연속성과 서원이 상징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진정으로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Embracing Tradition: My Journey at the Byeongsanseowon Confucian Academy Memorial Ceremony

Adrian Hill

Adrian Hill is from North Carolina, United States.

She studied finance and economics at UNC Charlotte and graduated in 2019 to enter the banking industry.

She came to Korea after making an impromptu decision to teach English for a year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Soon after she arrived in Korea, she became a 'travel correspondent' on the YouTube channel of the New York office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travel to various small villages in Korea.

She is working with other agencies in Korea to promote Korean culture such as K-Food, K-Beauty, and K-Wave on SNS, tourist attractions, and various events held in Korea.

Feeling the Confucian tradition and the connection with the ancestors through the incense smoke

The Byeongsanseowon Confucian Academy stands as a testament to the rich cultural heritage of South Korea, its walls steeped in centuries of tradition and wisdom- so it was without hesitation that I accepted the invitation to attend the memorial ceremony when I received the offer. As I stepped onto the sacred grounds of the academy, I couldn't help but feel a sense of awe at the history and tradition that surrounded me. Walking up the steps to the memorial site, I quickly found myself surrounded by 32 attendees, known as Yusa, wearing yellow traditional Korean attire known as hanbok, complemented by a gat or yuguan (traditional hat) and gomusin footwear.



01 _ Adrienne Hill is studying with students at Andong Byeongsanseowon Mandaeru

02 _ The traditional-dressed priests are climbing the shrine.



Shortly after arriving, I encountered a gathering of male students, referred to as Yusaeng, clad in light blue attire and engaging in an educational session about the ceremony's historical significance. I joined them briefly, asking the young men about their motivation for attending the ceremony- to which they expressed that they felt both honored and duty-bound to uphold the tradition for the benefit of past and future generations.

After joining the attendees for a filling dinner of steamed fish, yukhoe (raw beef), and miyeok (seaweed) soup- dusk began to descend. The moment drew near for the commencement of the ceremony's division of work, which would begin to unfold within the lecture hall. "Open, Open", were the first words I heard- signaling the start of the ritual. This next phase commenced with the Yusas assembling in a rectangular formation, offering respectful bows before assuming their seats. I watched as each Yusa confirmed his attendance to the leader of the ceremony. Shortly after, a hanging wooden board that was filled with a list of names in calligraphy was detached from the back wall and brought to the front of the room. A Yusa began to carefully remove the paper from the board, rolling it tightly, and would then transfer it for archival placement. I watched as the wooden board was then recovered in paper by one Yusa, while the eulogist opened a black chest of calligraphy ink and began to inscribe intricate Chinese characters in thick ink- an act that would signify their commitment to honoring the memory of Confucian scholars and their teachings. After completion of the eulogy composition, it was time to proceed to the final segment of day one: Arrangement of food offerings. I followed my fellow attendees into a room on the right side of the academy where the Yusas took position on their knees, directing their attention to the brown kang-style tables. On one side of the room lay a group of tables holding moist and dry offerings such as pork, fish, and water parsley,

while on the other side sat a large container of rice. I watched in silence as rice offerings were carefully poured into a white drawstring bag, then carried across the room to join the rest of the food. Just after 9 PM, the process of arranging food offerings would draw to a close, as each Yusaeng would individually approach the shrine with their table and place the sealed food offerings.

As I approached the academy the next morning, I was welcomed by the Yusas, again dressed predominantly in yellow hemp fabric, though three stood out in elegant dark blue hanboks, while the president adorned a vibrant magenta hanbok. The Yusas began to make their way up the steps of the shrine, signaling the start of "Chwiwi" - which consisted of the primary wine officiant carefully inspecting the food arrangement on the table once more followed by all participants bowing twice before the shrine. I moved closer to the shrine's doors, where the scent of burning incense wafted through the air, signaling the commencement of "Bunhyangnye"- also known as an invitation for spirits to attend the ceremony. Above the burning incense laid three goblets and an assortment of sacrificial offerings. I noted how detailed this phase of the ceremony was - a timely process that involved several steps, with the next being "Jeonpyerye"- the ritual of offering a sacred gift followed by "Choheonnye"- the offering the first goblet of wine. I could no doubt feel the maintained connection that attendees were able to keep with their ancestral spirits during these rituals. Soon after, I listened as the eulogy was read (Dokchuk) and watched as each Yusa kneeled in synchronized motion. The rituals continued, with the second and third goblets of wine being offered inside the doors of the shrine. The sun had now begun to peak over the mountains and it was time for "Eumbongnye". I watched as a kang table would be placed outside the shrine doors facing the west, where the president of the Yusas, dressed in a

vibrant magenta hanbok, knelt over a piece of meat and drink plated on gold tableware. Immediately after, I watched as the remainder of the Yusas bowed on their straw mats lined across the grass for recognition of the Eumbongnye. The piece of meat, once placed on the table, was then wrapped in paper as a final farewell to the spirits. A final series of bows soon took place, once more performed by all attendees. By 7AM, the students, or Yusaeng, began to conduct the “Cheolbyeondu,” which is the act of moving the byeon and du to express farewell to the spirits. Within the next 15 minutes, the Memorial Rite would begin to conclude. I watched as each member lifted a silver goblet while one read Village Codes aloud to the group, followed by several Yusas standing and expressing gratitude to each other- a moment where I looked around and could not help but feel an immense sense of gratitude and appreciation for the ceremony I had just been apart of.

Participating in the ceremony itself was a deeply immersive experience. From the intricate rituals performed by the officiants, to the history I was able to learn in my short visit to the academy, every aspect of the ceremony did an excellent job at signifying the legacy of Confucianism in Korean culture. One particular moment that stood out to me was the offering of incense at the altar. As the fragrant smoke wafted upwards, I couldn't help but feel a sense of connection to the generations of scholars who had come before me. It was a true reminder of the continuity of tradition and the timeless wisdom that the academy represented.



Alja(volunteer) pouring alcohol to eat the food dedicated to the sacrifice

‘한국의 서원’의 위상

연속유산으로서의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연속유산의 등재 이후 통합관리체계의 마련과 이행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개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기 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유하며, OUV에 훼손이 없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매우 모범적 사례 중 하나이다.



이예나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장

세계유산 등재 5주년 - 서원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어 국민 곁으로 다가가도록

얼마 전인 2024년 5월 11일,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전남 장성에 위치한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배용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서원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등재와 보존관리에 대한 그 간의 노력과 함께 앞으로 서원의 가치가 더욱 확

산되어 갈 수 있도록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의 서원’은 2019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었으며, 당시 우리나라의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의 첫 등재 이후 가장 최근인 2023년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약 3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세계유산을 등재했다. 단순한 산술 통계로 보자면 2년에 1건 꼴로 등재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1995년 첫 등재 이후 2000년까지 5년간 7개의 유산이 등재되었고, 약 7년간 휴지기를 가진 이후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의 유산이 추가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등재의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등재 초기 종묘, 수원화성 등 하나의 문화유산, 즉 단일유산을 등재하던 것에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2000년/구성요소 3곳),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7년/구성요소 7곳), 한국의 서원(2019년/구성요소 9곳), 한국의 갯벌(2021년/구성요소 4곳), 가야고분군(2023년/구성요소 7곳)과 같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가진 유산, 즉 연속유산의 등재를 점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발표

확대해 왔다는 점이다. 연속유산의 등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국내 유산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면밀한 연구·조사를 거쳐 잘 구성하면 보다 높은 완전성과 진정성을 가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 나열한 몇 건의 연속유산의 등재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거석 기념물로, 선사시대의 기술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등재기준 (iii)을 충족하였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오늘날까지 신앙공동체가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승원으로서 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된 공간구성의 진정성을 보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진 성역으로서 특출한 증거라는 점에서 등재기준 (iii)을 충족하였다. 가장 최근 등재된 ‘가야고분군’ 역시 등재기준 (iii)을 충족하였는데,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원과 국민을 잇는

(재)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활동

‘한국의 서원’의 경우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창조된 교육체계가 운영된 건축물로서 서원 건축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등재기준 (iii)*을 충족하였다. 소수서원(경북 영주),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서원(대구 달성), 병산서원(경북 안동),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이상 9곳이 바로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서원이다.

이러한 연속유산의 등재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유산들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면 연구 및 조사, 신청서 작성 등 각 절차들을 이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등재보다 더 어려운 일은 등재 이후 보존관리를 통합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일이다. 많은 경우에 등재 이후 각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간의 이해관계 및 대립으로 인

* 등재기준 (iii) :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해 안정적인 통합관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반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연속유산의 등재의 경우 등재 이후 통합관리체계의 마련과 그 이행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권고한다. 이는 동일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개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기 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유하며, OUV에 훼손이 없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매우 모범적 사례 중 하나이다. 등재 이후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재)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센터가 발족되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술대회,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연구 및 활용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

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서원과 국민을 잇는 중요한 가교로서 센터가 더욱 발전된 활동들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세계유산과 관련한 예산을 늘려 유산의 보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문화유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존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2023~2027)〉이라는 중장기 계



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행계획 하에 각 지자체와 센터, 그리고 각 서원의 도유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하여 서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유산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등재 다음해인 2020년부터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 홍보와 활용 사업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센터를 통해 많은 사업들이 운영됨으로써 유산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와 대중 참여 유도라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인적, 재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재원의 분배 차원에서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세계유산과 관련한 예산을 늘려 반드시 필요한 유산의 보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01 _ 경주 옥산서원 전경
02 _ 남계서원 연지 전경



The Nation's Role i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s Serial Heritage Properties

Ye-na Lee (Head of the World Heritage Policy Division, Heritage Policy Bureau, Korea Heritage Services)

The provision for and execution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llowing the inscription of serial propert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s recommended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This means the properties with comparativ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should understand and share the situation of each property and place mutual effort to maintain the OUV rather than to strive for individual maintenance. In this view,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s an exemplary case.

Five Years since the Inscription – Expanding the Value of Seowon towards Greater Outreach

On May 11, 2024, a ceremony was held at Pilam-seowon Confucian Academy, located in Jangseong-gun, Jeollanam-do, to celebrate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inscription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Key figures from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Seowon joined the ceremony, including Board Director Bae-yong Lee from the World Heritag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for Korean Seowon, Deputy Director Kyeong-hoon Lee from Korea Heritage Service, and Governor Yeong-rok Kim from Jeollanam-do Province to discuss the past efforts and to stress the importance of public outreach towards continued expansion of Seowons' values.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as inscribed to the List at the 43rd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n 2019, held in Baku, Azerbaijan, as the 14th World Heritage site in Korea. Since the first inscription in 1995, which included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Jongmyo Shrine and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and the most recent inscriptions in 2023 of Gaya Tumuli, the Republic of Korea has inscribed a total of 16 sit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While simple statistics would show an inscription

every two years, in truth 7 heritage sites were listed over five years between 1995 and 2000. After a 7-year-long pause, 9 sites were added to the list starting with the 2007 inscription of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The most visible characteristic of Korea's history of inscriptions is the transition from single property inscription, as visible in Jongmyo Shrine and Hwaseong Fortress, to inscription of properties in series, or heritage sites with the same OUV despite their distribution across the nation, as witnessed in the cases of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2000, 3 sites);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2018, 7 sites);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2019, 9 sites); Getbol, Korean Tidal Flats (2021, 4 sites); and Gaya Tumuli (2023, 7 sites). While the inscription of serial properties is difficult due to the selection of sites that satisfy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if one is able to organize the sites based on strong research and investigation foundation, they can b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with stronger integrity and authenticity.

Criteria for the inscription of serial properties as described above are as follows.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consist of stone monuments that satisfied the inscription criteria (iii) in that they showcase the technology and the societal situation of the ancient period.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a comprehensive temple for religious practices and everyday life of a religious community that continues to this day, satisfied the criteria (iii) as they not only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a spatial organization that reflects Buddhist religious values but also as a sacred site where religious activities have been sustained continuously. 'Gaya Tumuli', the most recent addition to the list, also satisfied the criteria (iii) as they are important evidence that demonstrates a unique system that maintained autonomous and lateral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nations and showcases the diversity of ancient civilizations in East Asia.

Activities at the World Heritag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for Korean Seowon that Connect Seowon to the Public

In the case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the inscription criteria (iii)* was satisfied in that they demonstrate an outstanding case of architectural typology as architectural sites where an educational system was created for practicing Neo-Confucian edu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Nine sites: Sosu-seowon (Yeongju-gun, Gyeongsangbuk-do Province), Namgye-seowon (Hamyang-gun, Gyeongsangnam-do Province), Oksan-seow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Province), Dosan-seowon (Andong-si, Gyeongsangbuk-do Province), Pilam-seowon (Jangseong-gun, Jeollanam-do Province), Dodong-seowon (Dalseong-gun, Daegu), Byeongsan-seowon (Andong-si, Gyeongsangbuk-do Province), Museong-seowon (Jeongeup-gun, Jeonbuk State), and Donam-seowon (Nonsan-si, Chungcheongnam-do Province) are the ones whose World Heritage values have been recognized.

The inscription of serial properties is not an easy task. Since the sites are distributed across different regions, without a proper center, difficulties in each step of the procedure from research and investigation to application preparation cannot be avoided. Furthermore, it is typically more difficult to pursue comprehensive maintenance following the inscription than the inscription itself. Many have witnessed situations of conflicts among municipalities and/or associated institutions, which result in a disturbance in the stable comprehensive maintenance. However,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mmends the prepara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its execution as the most important follow-up to the inscription of serial properties to the List. This means that heritage sites with the same OUV should understand and share each other’s situation and strive for mutual efforts in maintaining the OUV. In this regard,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s an exemplary case. Following the inscription, the World

Heritag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for Korean Seowon was established with support from all associated municipal governments to create a comprehensive website and pursue a diverse array of research and projects including symposiums, educational programs and promotional activities. I hope to see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activities from the Center serve as an important bridge between Seowon and the public.

Expanding the World Heritage-related Budget for Protection of the Heritage Sites

On the other hand, from the cultural heritage perspectiv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s subject to a conservation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previousl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 long-term plan titled “Operative Plan fo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2023-2027)” has been established which allows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municipalities, the Center and the directors from each Seowon to cooperate in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Seowon sites. For an unobstructed operation of the Plan, the Korean Heritage Service provides financial support that matches the municipal funding with federal funding towar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n addition, budget support for comprehensive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the sites towards the expansion of World Heritage values has been in place since 2020 following the inscription. Comprehensive promotion and utilization projects at the Center, as discussed above, strive to achieve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increasing the capacity of heritage managers and alluring public participation. Yet, stable and sustained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heritage require systematic support from both the fede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While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support are both significant, they are always lacking in terms of resource distribution. In the future, we should strive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World Heritage sites so that adequat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sites can take place.

* Selection criteria (iii):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필 암 서 원 백 일 장

장성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선생 추모 백일장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필암서원은 매년 5월 백일장을 개최한다. 우암 송시열은 신도비에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하서 김인후 선생이 도학, 절의, 문장을 두루 갖추게 했다고 칭송했다.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3년부터 백일장을 개최하여 올해로 22회가 되었다. 필암서원의 백일장은 필암서원학술회가 주관하고, 장성군과 하서학술회가 후원한다. 백일장 진행은 장성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는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입소식을 마치고 우동사에 알묘 후 해설사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서원경내와 유물전시관을 관람한 후 버스로 이동하여 백화정, 난산통곡단, 그리고 하서 선생님의 신도비를 탐방한다. 향토 유적지인 조선 명종 때의 청백리 박수량 선생의 백비, 변이중 선생을 모시는 봉암서원을 탐방하여 장성 선비들의 정신을 배운다.

필암서원과 인근 향토유적지 탐방을 마친 참가자들은 6월 25일까지 두 편의 글을 써서 이메일로 제출하고, 서원학술회 임원 다섯 명이 엄격하게 심사한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오십만원의 상금을 시상하고, 추계향사에서 작품을 낭독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한 전원에게는 오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있다.

서원의 정기적인 교육 기능은 사라졌지만 필암서원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필암서원의 김상백 도유사는 현대에 와서 서원의 교육 기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고, 필암서원의 백일장 같은 유형도 교육 기능의 명맥을 이어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01 _ 박래호
(장성 필암서원 선비학당 학장)

02 _ 김상백
(장성 필암서원 도유사)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기리기 위해 22년째 백일장 개최



김진산
필암서원 부도유사

백일장 개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암서원의 백일장 개최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하서 김인후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서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로 인종의 스승이셨으며,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두루 갖춘 분입니다. 신도비의 비문은 우암 송시열^{宋時烈} 선생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신도비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많은 인물 중에서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겸비한 탁월한 이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고, 이 셋 중 어느 한두 가지에 뛰어났는데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 하서 선생을 종생하여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묘에 배향된 우리나라 18현 중 호남출신으로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서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필암서원은 선생님의 도학, 절의, 문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불여 장성^{*}인 양성에 도움을 주는 유적지 순방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합니다.

백일장을 주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백일장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학술회가 주관하고, 장성군청, 하서학술회, 장성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일장의 주최에는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장성군(군수 김한중)과 문정공대중증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참가 학생의 선발, 인솔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김진홍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행사 진행 전반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백일장은 역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백일장은 2003년 한시^{漢詩} 백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한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시에 전국 유림, 한시 동우인, 주민 등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하서 선생님의 학문이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자 세대가 줄어들면서 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2014년부터는 한글백일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백일장으로 바뀌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불여 장성인^{文不如長城人}’^{*}양성의 취지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불여 장성^{文不如長城}:
홍선대원군 이하응이
전국을 돌아보고 장성에
대해 평한 말로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
다”란 뜻이다.

백일장 참가 자격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참가합니다. 참가 학생의 추천 등에는 장성교육지원청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백일장 개최시기는 언제이며, 횟수와 참가자 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백일장은 매년 5월 세 번째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2003년 한시백일장으로 시작되었으니 올해 22회째가 됩니다. 필암서원 관계자와 장성군, 장성교육지원청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20년 넘게 개최해 왔습니다.

백일장의 주제와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입상하는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백일장의 주제는 하서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관내 박수량 선생의 청렴정신, 변이중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유적지를 탐방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메일로 두 편의 원고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6월 25일까지입니다. 제출된 원고는 학술회 임원 다섯 분이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해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고 참가학생 전원에게 일정액의 격려금을 줍니다. 발표 및 시상은 필암서원의 추계향사에 맞춰 진행하고, 금상을 수상한 학생은 추계향사에서 금상 원고를 낭독합니다. 지난 2023년 으뜸상 수상자는 장성 삼서초등학교 5학년 김정례 학생이며 작년 추계향사에서 낭독하였습니다.

백일장 참가자는 백일장 참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백일장 참가자들의 반응은 학부모와 학생의 반응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님에 대해 배우고, 장성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장성인의 긍지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한 장성에 있는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며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게 되어 장성인으로서의 뿌듯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백일장을 계기로 장성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교육적인 효과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일장의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농어촌의 학생 감소는 무척 심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도 1개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참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청,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백일장의 개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필암서원의 백일장이 ‘장성義’에서 ‘전남義’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이 커지는 백일장으로 발전하기를



김진홍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백일장 개최 배경과 교육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2024년 교육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과제로 “장성 ‘義’ 독서인문교육과 특색 교육으로 신^新 선비를 키우는 문향^{文香}교육”이 있습니다. 필암서원에서 모신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애와 전라남도교육의 기본 방향의 맥이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 추모 유적지 탐방을 통해 절의^{節義}와 실천 정신의 의향^{義香}, 예술적인 풍치의 예향^{藝香}, 자연의 미향^{味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장성에 대한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해 배울 기회를 주고, 과거와 현재, 미래교육의 징검다리가 되는 향토문화와 역사를 이해하여 학생들의 자긍심 함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백일장 참가 자격은 무엇입니까?

선발기준은 장성의 역사, 문화,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하고자 하고 친구들과의 단체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장의 추천과 장성교육지원청의 추천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일장이 어떻게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성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 고장의 인물과 역사의 배움 기회를 전라남도 내 다른 고장의 학생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참가 학생이 장성관내 학생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남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성교육지원청이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여 ‘장성義’가 ‘전남義’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이 커지는 백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암서원과 학교 간에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필암서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장성교육지원청에서는 장성 교육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에서 편성된 교육과정에 연계 운영하여 진행하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향교(유림회관)에서 장성 선비정신 계승 교육, 장성문화원은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고을 역사지킴이 선비체험, 다도교실 등 인성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성교육지원청에서는 체험비, 강사비 및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암서원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암서원에서 하는 추향제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직접 제를 올리는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학교 교육과정 지원 통합시스템(학·통)이란?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장성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무렵 (12월~1월)에 안내하여 학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안내 자료와 시스템

학통 원클릭시스템 활용: 장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학교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현황을 유관기관과 조율함

장성 필암서원은 처음인데 다음에 와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소연
장성 진원초등학교
5학년

백일장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재미있을 것 같고, 글쓰기 대회에도 참가해 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이전에 필암서원에 와본 적이 있나요? 필암서원 외 다른 서원에 가본 적은 있나요?

필암서원도 처음이고, 다른 서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 와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기하고 역사가 재미있었어요.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있나요?

글쓰기 연습하고, 말하는 거 준비했어요. 자기 소개하는 거요. 그리고 필암서원과 김인후 선생님에 대한 것을 읽어봤어요.

필암서원에 와서 보거나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조대왕이 보내주신 돈으로 지었다는 경장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붕 네 귀퉁이 중 세 곳에 만 용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했어요.

필암서원에 다시 와볼 계획이 있어요?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오고 싶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서원에 있는 건물도, 김인후 선생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고 교 생 의 제 향 참 관 기

서원, 그리고 끝나지 않을 기억

병산서원은 매년 춘추향사를
풍산중·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봉행한다.
학생들은 병산서원의 역사, 백록동규 등
수업을 하고, 향사에 역할을 맡아 참여한다.



성현우

안동 풍산고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병산서원의 향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다. 친구들과 병산서원으로 가는 길에 병산서원과 우리 학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다. 병산서원의 교육의 역할을 우리 풍산고등학교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병산서원의 향사를 돕는다고 하셨다. 몇 분 걸리지 않는 길이지만 병산서원으로 향하는 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역사시간에 배웠던 서원의 모습은 우리를 설레게 했다. 도착하자마자 유사님께서 서원에서 입을 옷과 유건을 주시고 서원에서 지켜야 하는 몇 가

지의 규율을 알려주셨다. 항상 옷을 잘 입고 유건을 쓰고 있고 절대 뛰지 않아야 한다는 등이다. 그 규율을 들으며 우리들은 조선시대 유생의 옷을 입고 1박 2일의 짧지만 길었던 서원에서의 시간을 시작하였다.

아직은 4월의 시작이지만 해는 한 여름처럼 뜨거웠다. 우리들은 서원에 계신 분들을 도와 향사 준비를 했다. 병산서원은 서에 류성룡 선생님을 모시는 서원이기에 서에 선생님께 제사를 지낸다. 먼저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사당 아래 넓은 터에 모여 예를 갖춘 후 천천히 한 사람씩 올라갔다.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오르는 모습이 500년이 넘는 병산서원의 유구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제사를 지낸 뒤 우리는 만대루에서 짧은 수업을 들었다. 수업은 서원들과 병산서원의 역사, 그리고 서원에서의 마음가짐 등이었다. 병산서원의 이름은 서원 앞의 산 이름이 병산이어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고 하셨다. 서원의 규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규율은 중국의 백록동서원의 규율, 백록동규이며 모든 서원이 그 규율을 따른다고 하셨다. 백록동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번씩은 들어본 규율이다. 父子有親(부자유친) -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君臣有義(군신유의) - 임금(국가)과 신하(국민)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夫婦有別(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長幼有序(장유유서) -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朋友有信(붕우유신)





- 벗과 벗 사이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위 이야기는 서원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예(禮)라고 말씀하셨다.

만대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대루는 특별한 날에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다. 문화재 보호가 그 이유이다. 만대루는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건물이라고 하셨다. 루를 지탱하는 기둥과 루의 기둥을 이루는 기둥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닥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마루를 깔고 그 마루 위에 기둥을 다시 세워 지붕을 세웠다고 하셨다. 만대루 위에서의 시간은 새롭고도 익숙한 배움들을 가졌던 시간이었다.

배우고 도우며 서원에서의 첫날을 지내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우리들은 피곤했지만 서원의 역사를 지키고 이어 나가는 새롭고 진귀한 경험을 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서원에서의 새벽은 추웠다. 하지만 우리들은 추위 속에서도 분주히 제사 준비를 했다. 전날 했던 제사와 거의 비슷한 형식이지만 이번 제사는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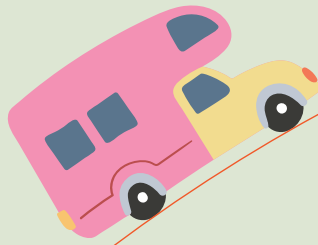
되었다. 전날 밤 각자의 역할과 이름을 기록하셨던 현관님들은 보라색과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다. 제사는 꽤나 길었고 이른 새벽의 찬 공기를 맡으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당 앞에 서 있는 것은 힘들었지만 나에게서는 우리의 역사와 서애 류성룡 선생님에 대하여 떠올려 보고 여러 추측을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서원에서의 이틀이 모두 지났다. 첫 시작의 설렘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과 깨달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생겼다. 서원과 서원에서의 사람들에게서 500년 동안 이어오는 서원의 역사와 전통이 느껴졌다. 5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그 역사를 지켜오고 기억을 현대로, 미래로 전해나가는 서원과 사람들, 그런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 또한 기록되고 또다시 이 기록들은 아득한 시간을 건너고 건너 더욱 아득해진 역사에 우리들의 이름 또한 전해질 것이란 생각에 서원에서의 시간이 짧지만 끝없이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다.

서원 가는 길의 캠핑장

학문을 배우고 자연을 즐기는 서원과 캠핑장

조선시대 서원은 강학과 제향, 그리고 교류와 유식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 교류와 유식을 통하여 성리학의 발전과 향촌 교화 활동을 주도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교류와 유식을 위해 주변 마을 및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특히 한국의 서원(9개 서원)은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주변 경관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캠핑이 일상화된 지금 추천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서원산책'은 이번 호에서 한국의 서원과 가까이 있는 캠핑 사이트를 찾아 소개한다. 캠핑하며 자연을 즐기고 서원을 찾아 학문을 배우던 선조의 향기를 느끼면 좋지 않을까?



소백산역 열차 카라반 캠핑장

죽령옛길 시작점에 열차모양의 캠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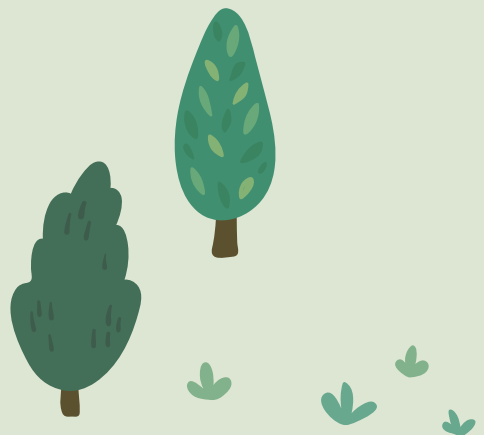
소백산역 열차 카라반 캠핑장은 열차모양을 하고 있다.

영주시 소유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명승으로 지정된

소백산3자락길 죽령옛길의 시작점에 위치한다. 근처 희방사역은

1923년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중앙선의 역이며 2020년 폐역이 되었다.

- 소재지 경북 영주시 풍기읍
- 거리 영주 소수서원에서 약 16km, 승용차로 25분 소요
-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moosoodal.kr)
- 편의시설 카라반 캠핑장으로 개별 동마다 주방, 화장실, 전기 사용 가능
- 문의 무쇠달마을(010-4635-4125 / 054-632-1042)





가온누리캠핑체험장

폐교를 리모델링한 가족 단위 캠핑장

가온누리캠핑체험장은 폐교를 리모델링한 캠핑장으로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 놀이방, 미로 찾기, 영화관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이 밖에도 대숲 산책로, 마중물 체험장, 탁구장 등이 있어 가족 단위의 캠핑에 좋다. 텐트뿐만 아니라 개인 트레일러와 카라반의 동반 입장도 가능하다.

소재지	경북 경주시 안강읍
거리	경주 옥산서원에서 약 4km, 승용차로 10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 (캠핏 또는 네이버 카페)
편의시설	화장실과 샤워장, 개수대 물놀이장, 놀이터, 산책로, 전기 사용 가능
문의	054-762-2000

경주
옥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대봉캠핑랜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와 아름다운 풍광의 산책로가 있는 캠핑장

대봉캠핑랜드는 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봉산의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신식 숙박시설로, 숲속의집·사나래관 등 각기 다른 특색의 펜션시설과 텐트와 함께하는 낭만 가득 캠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거리	함양 남계서원에서 약 15km, 승용차로 20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foresttrip.go.kr)
편의시설	화장실과 샤워장, 개수대 등
문의	휴양밸리와 시설운영담당(055-960-6540), 대봉캠핑랜드 캠핑지원관(055-963-2026)



안동
도산서원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호수와 휴양림을 함께 즐기자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안동호 옆에 있으며 경북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운영한다.
캠핑장 대신 '숲속의집', '전통가옥', '호반하우스'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호수와 휴양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이다.

소재지

경북 안동시 도산면

거리

안동 도산서원에서 약 5km, 승용차로 10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foresttrip.go.kr)

문의

054-855-3371



장성
필암서원

홍길동테마파크 야영장

민중의 영웅 홍길동을 알아가며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홍길동테마파크야영장은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있으며
홍길동에 대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

소재지

전남 장성군 황룡면

거리

장성 필암서원에서 약 3km, 승용차로 5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jangseo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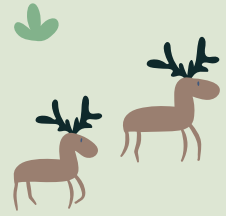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전기 사용 가능, 무선 인터넷

문의

061-394-7242





달성
도동서원

낙동강레포츠밸리

수려한 자연 풍광을 보고, 낙동강 강변에서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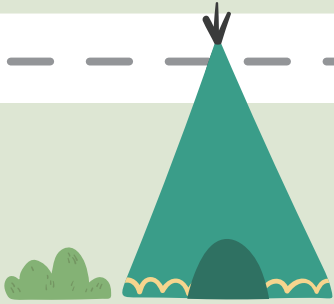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낙동강레포츠밸리는
구지오토캠핑장, 강변오토캠핑장 외에도 윈드서핑, ATV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휴양과 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고
낙동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캠핑장이다.

소재지	경북 달성군 구지면
거리	달성 도동서원에서 약 5km, 승용차로 10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dssiseol.or.kr)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전기 사용 가능, 무선인터넷
문의	053-659-4150



안동
병산서원



단호샌드파크캠핑장

힐링과 역사를 만끽하는 낙동강변의 캠핑장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은 낙동강을 따라 하얗게 펼쳐진

백사장과 맑은 물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유교문화길이 있어서 힐링과 역사를 만끽할 수 있는 캠핑장이다.

소재지	경북 안동시 남후면
거리	안동 병산서원에서 약 17km, 승용차로 30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danhosand.or.kr)
편의시설	공동세척장, 샤워장, 화장실, 전기 사용 가능
문의	054-850-4595

정읍
무성서원



대둔산 도립공원 수락캠핑장

대둔산 자락에서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수락캠핑장은 논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웅장한 산세와 절경이 빼어나 봄이면 신록, 여름이면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우아한 설경으로 유명한 대둔산에 위치해 있다.

소재지	충남 논산시 벌곡면
거리	논산 돈암서원에서 약 28km, 승용차로 40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surakcamping.com)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전기 사용 가능
문의	041-733-1661

논산
돈암서원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복합놀이시설과 수상레저 체험존을 함께 갖춘 캠핑장

내장산 줄기 아래 조성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은 정읍시에서 운영한다. 캠핑장 주변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과 음악분수가 있고,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과 발담금터, 바닥분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수상레저 체험존 등이 갖춰져 있어 놀거리, 볼거리가 다양한 캠핑장이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거리	정읍 무성서원에서 약 17km, 승용차로 25분 소요
신청 및 예약	온라인 예약(www.jeongeup.go.kr)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전기 사용 가능
문의	063-538-7955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소식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 학술포럼 진행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재단)는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배용 재단 이사장(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개회사와 함께 개막한 이날 학술포럼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의 유사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센터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가치 증진과 전문 관리를 위해 매년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 학술포럼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포럼은 기존과 같이 학계 전문가 중심이 아닌 9개 서원의 유사들이 직접 개별 서원의 제향, 강학,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공유하였으며 지자체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서원’에서 국립국악원 ‘서원풍류’ 공연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은 ‘한국의 서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국악공연을 열고 있다. 상반기에 안동 도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함양 남계서원, 안동 병산서원에서 공연했다.

2024년 하반기 ‘서원풍류’ 공연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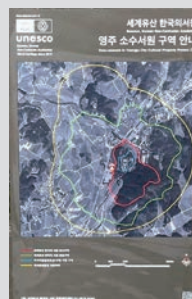
서원	일시	공연 장소
논산 돈암서원	10월 11일 (금) 오후 8시	돈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10월 26일 (토) 오전 11시, 오후 2시	강당 (중정당)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를 위한 현지점검(모니터링) 확장 시행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해, 서원 9곳에 세계유산 구역(유산 및 완충)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다. 이는 유산관리자와 지역주민 등 서원이 위치한 주변지역의 경계를 설명하여 주변의 개발과 서원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9개 서원에 대한 지역주민을 세계유산 완충구역 현지점검 요원으로 임명하여 지난 3월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3/18~22) 이를 통해 센터는 서원의 유산구역[서원유림]과 완충구역[지역주민]에 대한 현지점검을 매월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세계유산 구역 안내판



현지점검 시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로고 변경에 따른 한국의 서원 통합안내판 및 등재 기념 표지석 로고 변경

2023년 유네스코 본부는 세계유산 로고를 변경하였다. 이에 센터에서는 변경 지침에 따라 9개 서원에 설치되어 있던 통합안내판 및 세계유산 등재 기념 표지석 로고를 변경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기념 표지석(도산서원 예시) 변경 전, 후

서 원 에서 건 진 나 의 인 생 샷

서원은 사진 맛집! 멋진 순간을 잡아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서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학덕이 높은 선현들을 추앙하고, 서로 교류하던 곳이다.

당시의 선비들은 서원에서 국가 경영에 대해, 효와 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하여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것이다.

서원에서 선현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느끼며, 사진 한 컷으로 마음을 다잡아 본다.

경주 옥산서원



날씨가 너무 좋은 5월의 어느 날
푸릇푸릇함을 느끼러 떠난 경주에서
우연히 만난 옥산서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윤희



경주 옥산서원



서원 알리기 행사 덕분에 한복 입고 가훈쓰기 하고 차랑
떡도 먹었습니다. 서원에 사람이 많은 것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경치도 좋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천명현



달성 도동서원



공자의 도가 동쪽에서 곧게 왔다는 의미로 이름 지어진
도동서원에서 과거제를 재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도동서원 성리학 후손분께서 옛 성리학자의
정신과 뜻대로 곧게 서서 계시며 선비의 기개를 보여주십니다.
박윤준

달성 도동서원



도동서원에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여름풍경입니다.
박윤준

논산 돈암서원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명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받은 사액서원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에 위치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하나로 유학의 정취가 아름답게 남아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경은



영주 소수서원



녹음속 경림정
소수서원의 경림정에서 짙은 녹음으로 아름다운 여름을 바라봅니다.
신승희

영주 소수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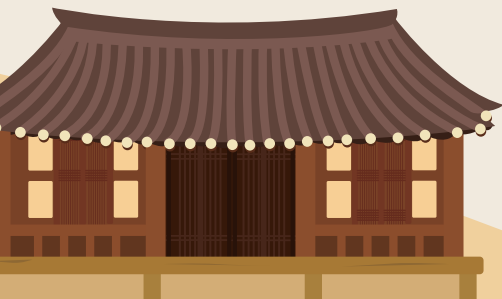


소수서원으로 가는 길
아름다운 소나무숲 사이길로 엄마와 아이가 소수서원으로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신승희

경주 옥산서원



경주 유적지 탐방 중 만난 옛 현인들의 학문연구 공간 경주 옥산서원에서
아계 이산해 선생님의 아름다운 글씨 넘어 끝이 없는 누각 '무변루'를 만나다.
김도



정읍 무성서원



무성서원의 여름
소박하지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무성서원의 여름모습입니다.
한옥의 결이 아름답고, 사방이 크게 트여 무성서원을 오는 누구든 환영할 것 같은
명륜당의 시원한 모습입니다.
박은기

경주 옥산서원



석봉 한호 선생님께서 쓰신 현판과
아름다운 색채가 어울리는 구인당
김도



